

## 시집 낸 前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씨

## “노동운동 반성과 성찰 시어에 담았습니다”

“지나온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시어(詩語)에 담았습니다”

이수호(57)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시인으로 등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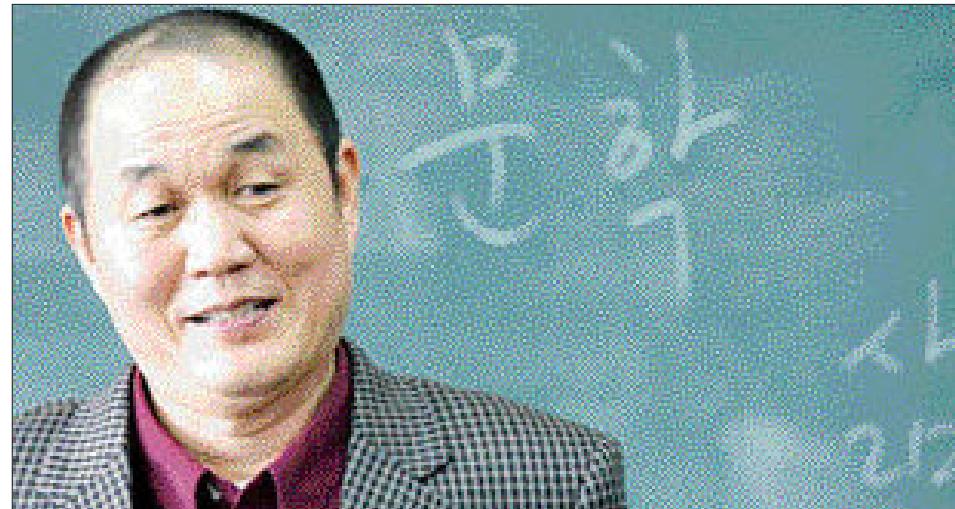
최근 시집 ‘나의 배후는 너다’(모멘토 펴냄)를 펴낸 이 전 위원장은 “사퇴 후 스스로 걸어 왔던 길을 한 걸음 떨어져 보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썼던 시를 모아 책으로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 3월부터 국어 교사 재직

이 전 위원장은 3월부터 본업인 교사(서린인터넷고등학교)로 돌아가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강승규 수석부 위원장의 비리사건이 불거자 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최근까지 언론과 접촉을 피하였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일부 연맹위원장이나 지역본부장, 심지어는 일부 전임 상근자들까지



나서는 선동적인 정파공격에 민주노총 전체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까 염려돼 총사퇴 결단을 내렸다”며 “결국 힘을 써보지 못하고 둘째 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그는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노동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노동운동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운동가 혹은 활동가라는 명칭은 현장에서도 활동하는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말”이라며 “내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노동운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의 민주노총에 대해서 “비정규직 법과 대추리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문제가 겹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얼마 전에는 집회 장소에 모자를 눌러쓰고 나가 아무도 모르게 뒤에 앉아있다가 돌아온 적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열심히 사는 것이 노동운동”

다시 학교로 돌아간데 대해 “학생들이 정보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교내에서 혹은 학교들 사이에서 교육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후배 교사들에 대해서는 “임용제도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실력 좋은 교사들이 많아졌지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 혜은이 ‘진짜 진짜 좋아해’ 다시 부른다

가수 혜은이(50)가 1970년대 후반 히트곡인 ‘진짜 진짜 좋아해’를 29년 만에 다시 불렀다.

75년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데뷔한 혜은이는 77년 문여송 감독, 임예진 주연 영화 ‘진짜 진짜...’의 동명 주제곡을 청순한 음색으로 불러 70년대 후반 대히트를 기록했다.

이 노래는 현재 방송중인 유진·류진·이민기 주연의 MBC TV 주말극 ‘진짜 진짜...’ 주제곡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9일 밤에 드라마 O.S.T에는 혜은이가 ‘진짜 진짜...’ 원곡과 가사를 일부 바꿔 부른 버전 두 곡을 새로 녹음해 수록했다.



## 타이타닉호 美 마지막 생존자 사망



지난 1912년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미국 생존자인 릴리언 거트루드 애스플런드 여사가 6일 99세로 사망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 5세로 가족 가운데 부친과 3명의 남자 형제를 뒤었던 애스플런드 여사는 모친 및 3세 남동생과 함께 살아남았으며 사고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애스플런드 가족은 스웨덴으로부터 미국 매사추세츠주 워체스터로 가기 위해 영국 사우샘프턴항에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했으며 모두 3등 객실을 이용했다. 장례 미사가 열릴 워체스터 추모교회의 네덜란드 존슨은 애스플런드가 취침 중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 위성미, 텔런트 데니스 오와 ‘깜짝데이트’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왼쪽)가 8일 오전 경기도 가평 프리스틴밸리골프장에서 열린 ‘나이키골프 초청 친선 라운드’에서 평소 만나고 싶어 했던 데니스 오를 만나 선물을 주고 받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만남은 위성미가 행사를 앞두고 ‘데니스 오를 만나고 싶다’고 말해 주최측이 부랴부랴 데니스 오를 섭외해 성사됐다.

위성미는 데니스 오에게 친필 사진과 함께 자신이 쓰고 있는 나이키 SQ드라이버를 선물했고 데니스 오는 출연작 ‘달콤한 스파이’ DVD 세트로 답례했다.

또 위성미는 “장타를 치고 싶다”며 레슨을 원하자 드라이버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며 데니스 오의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고 있다.

## 90세 할아버지 와 75세 할머니 ‘백년가약’

## “당신은 내 사랑”

## 죽어도 좋아...



‘족발촌’ 이웃사촌이던 90세 임진국씨와 75세 차갑선씨가 8일 서울 영등포 역전파출소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임씨는 지난 27년간 하루같이 출퇴근 시간 영등포역 앞에서 교통봉사를 활동을 해온 지역의 유명인사.

차씨와 같은 영등포역 뒤편 쪽방촌에서 살며 서로 눈사람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임씨의 앙아들인 역전파출소 소속 김덕기 경사의 종대로 이날 평생의 반려자였다.

동네 친우(親友)들과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택순 경찰청장 등 150여명의 하객 앞에 선 임씨의 결혼 예복

은 평소 교통봉사를 할 때 즐겨 입던 교통경찰복. 차씨는 앙아들인 김경사가 준비한 하얀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었다.

정철수 영등포경찰서장의 주례로 열린 이날 결혼식에서 어린이 합창단 ‘행복한 음악모임’과 영원 초등학교 학생들은 축가로 결혼식을 흥겹게 했으며 영등포역 주변 상가번영회는 하객들에게 잔치국수를 제공하며 경사를 축하했다.

## 재미 무용가 옹경일씨 이사도라 던컨상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활동중인 무용가 옹경일(34)씨가 제20회 이사도라 던컨상(일명 이지스 izzies상)을 수상했다.

던컨 상은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세계 현대무용의 창시자 이사도라 던컨의 이름을 따 제정된 상으로 매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공연된 무용 작품들 가운데 단체공연 양상을 공연 개인공연 암부 리비아벌 음악 시각디자인 등 부문별로 시상을 한다.

옹씨는 그가 운영하는 무용단(Ong Dance Company)의 수준 높은 활동력을 인정받아 최근 샌프란시스코 에브리바운 아트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뉴스타일 마더로드 무용단과 공동으

로 ‘단체공연’ 부문 상을 수상했다. 옹씨는 지난해에도 샌프란시스코 민속축제에서 ‘북춤의 향연’을 선보여 샌프란시스코 재단이 주는 암무가상을 받은 바 있다.

## ‘미스 춘향’의 환한 미소



7일 오후 남원시 광한루원에서 제76회 춘향제 행사의 하나로 열린 춘한선발대회에서 일류규(23·상명대 영화과)씨가 영예의 미스 춘향 진에 뽑혔다.

## 동정

## 백낙청 문학평론가 ‘늦봄 통일상’



(사)통일맞이 늦봄문학한복사 기념사업(이사장 장영달)가 주관하는 제11회 늦봄 통일상 수상자로 문학평론가 백낙청(68) 서울대 명예교수가 8일 선정됐다.

## 내방

▲김성산씨(금호산업 대표이사 사장) ▲김현철씨(〃 이사)

## 김지현 요리학원 국제요리대회 ‘두각’



광주 김지현 요리학원 소속 원생들이 제15회 싱가폴 국제 요리 대회에서 동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김지현 요리학원 원생인 한교덕(41), 박종희(21), 김준호(29)씨가 이 대회 경연 부문인 메인플레이트, 에피타이저, 3코스 아시아 전통 요리에 출전, 각각 동메달을 따냈다. 수상자들은 주재료와 부재료의 간과 맛, 양양·색깔이 어우러진 빼어난 요리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영기자 penfoot@

제15회 싱가폴 국제요리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준호, 한교덕, 박종희(작로부터)씨가 시상식이 끝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최경주 선수 아들 제일銀 저축상품 1호 고객



SC제일은행이 최근 출시한 저축상품에 프로골퍼 최경주(36) 선수의 아들이 1호 고객으로 가입했다. SC제일은행은 8일 “가정의 달 맞아 지난 4일 출시한 입출금 저축상품인 ‘マイドリーム 통일상’에 ‘뱅크’ 최경주 선수의 아들 호준(10)군을 첫번째 고객으로 가입시켰다”고 밝혔다.

최 균이 이 상품에 첫번째 고객으로 가입한 것은 최 선수가 지난달 말 SC제일은행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연을 맺은데 따른 것으로, 최 균은 가입 기념으로 디즈니 저금통을 받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는 “최 선수가 어린이날 선물과 은행의 후원계약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아들에게 마이드림 통장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 오동진·류시현, 환경영화제 폐막식 사회



영화평론가 오동진씨(본보 영화 전문기자)와 MC 류시현이 10일 오후 7시 이화여고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제3회 서울환경영화제 폐막식 사회자로 선정됐다. 폐막작으로는 14개국 20편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제환경영화경선 대상 수상작을 상영한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리) 양=13일(토) 오후 1시50분 오페라하우스 1층.

▲박종원씨 장남 태영(LG전자) 군 김주식(전주 서성요한병원)씨 장녀 대현양=14일(일) 낮 12시 고흥 명가 예식장. 피로연 12일(금) 오후 5시30분 동명동 오피라하우스.

▲최재옥씨 장남 종화군(인성한의원 원장) 양희수씨(거상수출산업 사장) 차녀 정인양=14일(일) 오후 1시20분 경복궁웨딩컨벤션 1층 경복궁홀.

▲오명모씨 장남 정웅군 이종엽(광주MBC 국장)씨 장녀 이영양=13일(토) 오후 1시 오피라하우스 1층 특식.

▲홍희준(나주교육청 교육장)씨 장남 진우군 오피리(전남 대사법대학장)씨 차녀 슬현양=13일(토) 낮 12시 오피라하우스.

▲강사원(전 남도 건설도시국장)씨 막내 성웅(삼성 SDS 과장)군 오정길씨 장녀 수민(삼성 SDS 대표)씨

리) 양=14일(일) 오후 1시50분 동명동 오피라하우스 1층.

▲광주 북성중 한마음 대축제=14일(일) 오후 9시30분 모교 운동장.

▲광주 효동 32회 정기 월례회=16일(화) 오후 8시 북구 우산동 화니동나들해장국. 523-2550

▲충주 총장 종화군(인성한의원 원장) 지형원=13일(토) 오후 4시 병천사(광주 CBS 뒤) 011-618-2389

▲문화류씨 하정공파 유적지답사 모임=13일(토) 오후 7시 광주역. 010-3051-2415

▲광주사대부중 제 4회(회장 정성수) 동창회=13일(토) 오후 1시30분 지산동 가원 232-8877

▲광주인성고 가족한마당=14일

(일) 오후 9시 모교 운동장. 018-646-9444

▲광주 북성중 한마음 대축제=

14일(일) 오후 9시30분 모교 운동장.

▲광주 효동 32회 정기 월례회=

16일(화) 오후 8시 북구 우산동 화

니동나들해장국. 523-2550

▲문화류씨 하정공파 유적지답사 모임=13일(토) 오후 7시 광주역. 010-3051-2415

▲청원 황씨(시중공계)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황양선) 제9차 운행위

원회=13일(토) 오후 11시 광주시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9층 연

회장 232-6400

▲광주 강진군 항우회(회장 김영현) 정기총회=9일(화) 오후 6시30분 북구 아름회관(나주곰탕) 523-5885

▲제2회 이사도라 던컨상